

[29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이다. 즉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생산된 재화가 경제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 중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로렌즈곡선을 들 수 있다.

최고 소득을 맨 위에 놓고 최저 소득을 가장 아래로 놓는 형태로 정렬해보자. 수평축에 소득자의 누적비율을, 수직축에 소득의 누적비율을 표시하자. 그림의 사각형에서 수평축은 소득자의 누적비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내고, 수직축은 소득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누적비율을 아래에서 위로 증가하도록 나타내고 있다. 로렌즈곡선은 소득자의 누적비율에 따라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곡선이다. 예를 들어 α 점은 하위 소득자 30%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8%이고, β 점은 소득자의 5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소득의 25%임을 나타낸다.

만약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로렌즈곡선은 좌측 하단의 점과 우측 상단의 점을 연결하는 대각선이 된다. 즉, 직선 위에서는 저소득층 5%가 차지하는 전체소득이 5%이고, 전체 소득자의 5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므로 소득이 완전균등하게 분배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키의 로렌즈곡선은 지능지수보다 평등하고, 지능지수는 소득의 로렌즈곡선보다 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렌즈곡선은 국가 사이의 소득불평등이나 서로 다른 시점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갑국과 을국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하는 경우에 ㉠갑국의 로렌즈곡선이 을국의 로렌즈곡선보다 위에 위치한다면 갑국이 을국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두 개의 로렌즈곡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확하지 만약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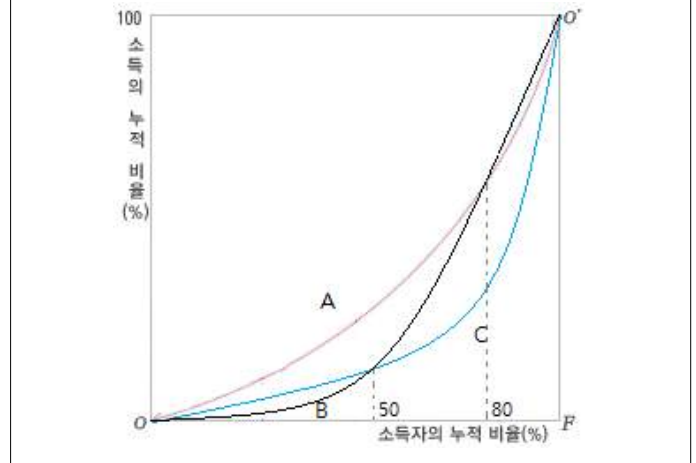
30. 밑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배문제는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 ② 소득이 완전균등하게 분배된 경우의 로렌즈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는 로렌즈곡선이 존재할 수 없다.
- ③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때 로렌즈곡선이 필요할 것이다.
- ④ 생산된 재화를 경제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문제의 한 축을 이룬다.
- ⑤ 사람 키의 로렌즈곡선은 소득의 로렌즈곡선보다 직선에 더 가깝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서로 다른 상황인 A, B, C에서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로렌즈곡선으로 나타내었다.



- ① 소득의 누적 비율이 같다면 A의 상황에서 소득자의 누적 비율이 가장 높겠군.
- ② 하위 소득자의 5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크기는 $B < C < A$ 의 순서를 따르겠군.
- ③ A의 상황에서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겠군.
- ④ 하위 소득자의 5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B보다 C의 상황에서 더 크겠군.
- ⑤ A의 상황에서 하위 소득자의 8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소득의 80%보다 적겠군.

30. ㉠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갑국에서 자원의 생산이 을국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 ② 갑국의 소득이 을국에 비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 ③ 을국의 국민수가 갑국보다 많다.
- ④ 을국에서 모든 국민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조사되었다.
- ⑤ 소득의 분배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갑국보다 을국에서 더 많이 제시되었다.